

# 아동빈곤의 특성과 청년기의 영향

Childhood Poverty in Korea: The Characteristics and Effect on Youth

김태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주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이 글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아동빈곤의 동태적 변화 특성과 아동기의 빈곤 경험이 청년기에 줄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동빈곤의 동태 변화를 보면, 아동빈곤은 시장소득(중위50%) 기준 장기빈곤층 7.5%, 반복빈곤층 8.1%, 일시빈곤층 10.2%, 비빈곤층 74.2%로, 지난 11년간 아동 중 25.8%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빈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빈곤 가구의 특성을 보면 여성이 가구주이고 불안정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빈곤을 장기간 경험하고, 소득빈곤과 더불어 주거 빈곤도 함께 겪고 있었다. 아동기에 빈곤을 경험한 청년층은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층에 비해 낮은 학력 수준과 불안정한 노동시장 참여 형태를 보인다.

##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생애주기별 빈곤율을 살펴보면 빈곤율이 높은 연령은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다음으로는 은퇴 연령인 50세 이상 중고령층의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아동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에 비해서는 빈곤의 심각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중위소득 50% 기준 아동빈곤율을 보면 시장소득 기준으로 2013년 8.4%, 2014년 7.7%로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의 60.6%, 62.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정은희, 이주미, 2015, pp. 77, 84). 따라서 현 정부의 주요 정책도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급여 수준 인상이나 노인 일자리 확대 등과 같이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이 제안되고 있다.

그렇다면 노인에 비해 아동의 상대빈곤율이 낮다는 점에서 아동에 대한 빈곤정책의 중요성이 감소하거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 글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매년 평가되는 빈곤율과 아동빈곤의 동태적 변화 간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아동빈곤 문제를 간과하거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 주고자 한다. 특히 아동기의 빈곤 경험이 청년 혹은 성년이 되었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보여 줌으로써 아동빈곤 문제를 재고찰하고자 한다. 통계청 및 연구자들이 빈곤율을 측정하는 방법은 소득·지출 자료를 통해 연도별로 빈곤율을 산출하고 그 변화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할 점은 올해 빈곤을 경험한 대상이 작년에도 빈곤했는지 혹은 과거에도 빈곤했는지를 구분하고, 빈곤 경험층 중 빈곤 위기 계층과 일시적 빈곤층을 구분해 냄으로써 해당 계층에 적절한 탈빈곤정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아동빈곤 관련 연구들은 아동빈곤의 연도별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어 아동빈곤의 동태적 변화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아동빈곤의 횡단적 변화와 더불어 동태적 변화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아동빈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빈곤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다음으로 패널 자료를 활용해 아동의 장기빈곤 현상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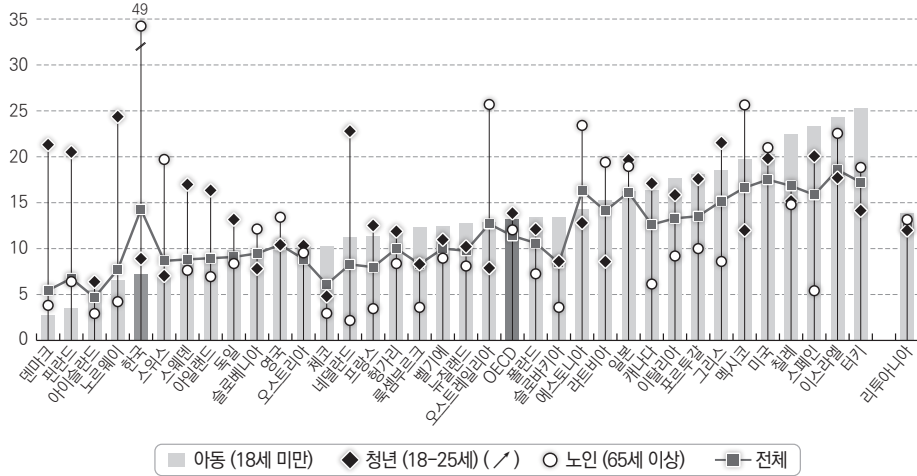
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아동빈곤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제안하고자 한다.

## 2. 아동빈곤 실태

우리나라 아동빈곤 실태를 분석하기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연령별 빈곤율 비교를 통해 한국의 아동빈곤율 수준을 살펴보았다. 다음 그림은 OECD 2016년 보고서 중 아동(18세 미만)과 청년(18~25세), 노인(65세 이상) 등 연령별 빈곤율을 비교한 것으로, 한국은 높은 노인빈곤율을 제외하고는 OECD 평균에 비해 아동빈곤율과 청년빈곤율이 낮은 수준이다. 특히 아동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낮은 편이며, 그 비율은 OECD 평균 아동빈곤율의 절반 수준이다.

다음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아동빈곤 실태를 소득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이다. 시장소득 중위 50% 기준 아동빈곤율은 2007년 12.3%로 2006~2016년 10년 동안 가장 높았다가 이후 점점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가장 최근인 2016년 빈곤율은 7.6%로 2015년 대비 0.5%포인트 하락하였으며, 경상소득 기준 또한 2007년 이후부터 가장 최근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유진, 김미곤, 정은희, 이주미, 정희선, 권지선 등(2016)에서는 이러한 최근 아동빈곤율의 감소 원인을 아동 가구의 가구원 근로소득이 상승한 것과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

그림 1. OECD 국가의 연령별 (상대)빈곤율 현황(가처분소득 중위 50% 기준)



자료: OECD, 2016, Society at a Glance 2016, p. 105 재구성.

표 1. 아동(상대)빈곤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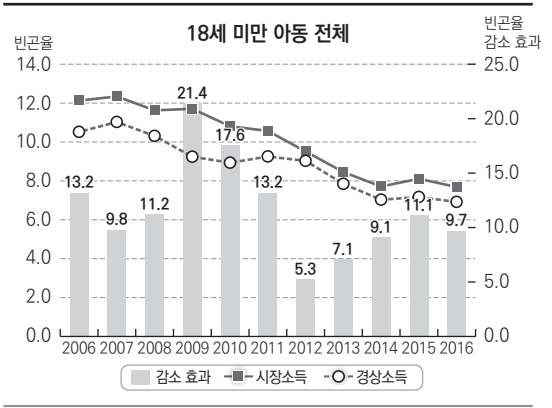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06년	7.6	12.1	18.4	5.9	10.5	17.6
2007년	8.0	12.3	18.6	6.2	11.1	17.8
2008년	7.5	11.6	16.8	5.4	10.3	15.7
2009년	7.3	11.7	17.1	4.7	9.2	15.9
2010년	7.2	10.8	15.4	5.0	8.9	14.4
2011년	6.8	10.6	16.1	4.6	9.2	14.7
2012년	6.1	9.5	15.0	4.7	9.0	14.9
2013년	5.1	8.4	14.3	4.2	7.8	13.4
2014년	4.5	7.7	13.2	3.5	7.0	12.6
2015년	5.1	8.1	13.7	4.0	7.2	12.5
2016년	4.8	7.6	13.0	3.8	6.9	12.7

주: 1) 1인 가구 포함, 농어가 제외.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 편. (2016). 2016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88. 통계청, 2016,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그림 2. 공적이전의 빈곤율 감소 효과

(단위: %)



주: 1) 1인 가구 포함, 농어가 제외.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

3) 중위 50% 기준 빈곤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 편. (2016). 2016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88. 통계청, 2016,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한 공적 현금 지원의 영향으로 분석하였다.<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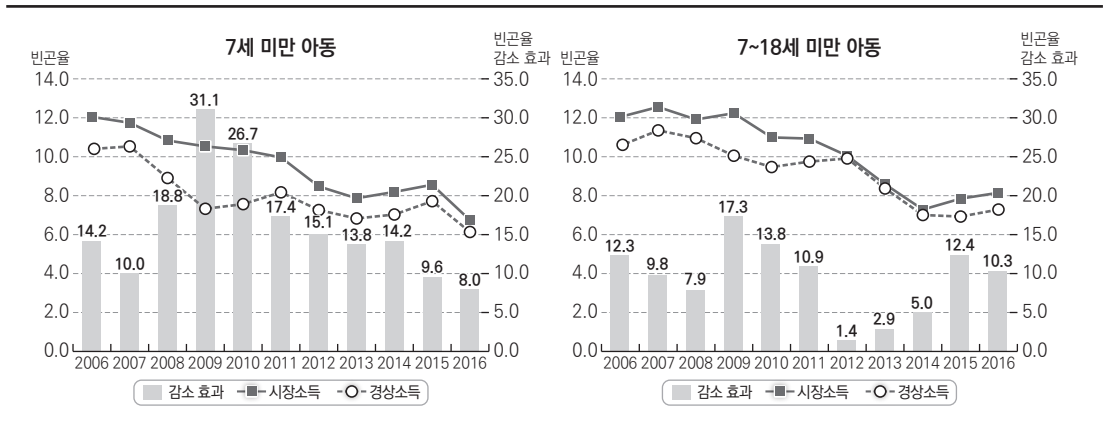
[그림 2]는 시장소득과 경상소득의 중위 50% 기준 빈곤율을 나타낸 것이다. 경상소득의 경우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값으로, 두 소득 기준의 빈곤율 차이를 통해 공적이전소득의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 효과<sup>3)</sup>는 2009년 21.4%로 가장 높게 나

타하며, 2012년 5.3%까지 감소하였다가 이후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인 아동수당이 도입된다면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 효과 상승 폭은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에서는 아동의 연령을 7세 미만 기준으로 나누어 연령별 빈곤율을 살펴보았다. 7

그림 3. 아동 연령별 (상대)빈곤율 추이(시장 및 경상소득 중위 50% 기준)

(단위: %)



주: 1인 가구 포함, 농어가 제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 편. (2016). 2016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88.

통계청, 2016.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1) 2006~2015년 동안 아동이 1명 있는 가구(실질근로소득 2006~15년 상승률, 22.6%)와 아동이 2명 있는 가구(21.7%)의 실질근로소득 상승률은 아동이 없는 가구(-4.0%) 또는 전체 가구(10.0%)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여유진 등, 2016).

2) 시장소득에는 가구나 개인이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이 포함된다. 사적이전소득은 개인 혹은 민간단체(기업, 종교단체, 복지관 등) 등이 부모, 친척 혹은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한 현금을 의미한다. 경상소득은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한 것으로 공적이전소득은 정부가 저소득층 혹은 복지정책 대상자에게 지급한 현금을 말한다(한국의복지패널은 일부 현물성 급여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공적이전소득에 포함함). 따라서 경상소득과 시장소득 간의 차이는 정부의 복지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3)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 효과(%) =  $\frac{(\text{시장소득 기준 빈곤율} - \text{경상소득 기준 빈곤율})}{\text{시장소득 기준 빈곤율}} \times 100(\%)$

세 미만 아동의 빈곤율은 2006년 시장소득 중위 50% 기준 12.1%에서 2016년 6.8%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경상소득 기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양상이다. 다만 2013년과 2015년 사이에는 조금 증가하지만, 10년간의 전체적인 경향성은 감소 추세로 나타난다. 연령별로 빈곤율을 비교해 보면, 7세에서 18세 미만 아동의 빈곤율이 7세 미만 아동빈곤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감소 추세는 동일했다. 다만,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7세에서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보다 미취학 아동인 7세 미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이 미취학 아동에게 편중되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공적이전의 빈곤율 감소 효과

는 2009년 31.1%로 높게 나타났다가 최근까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아동(가구)의 공적 지원에 대한 현금과 현물의 비중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아동 가구 유형별로 시장소득과 경상소득 기준 빈곤율을 살펴본 결과이다. 전체 아동 가구의 빈곤율은 시장소득 중위 50% 기준으로 2007년 10.6%로 가장 높았다가 점점 감소하는 양상으로, 가장 최근인 2016년 6.8%로 10년간 3%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 가구 유형 중 조손 가구 및 소년소녀 가구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시장소득 중위 50% 기준 50~60%대로 나타나는 등 높은 노인빈곤율과 무관하지 않은

표 2. 아동가구 유형별 (상대)빈곤율 추이(중위 50% 기준)

(단위: %)

시장소득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모자 가구	25.4	24.2	19.9	19.1	25.6	25.0	21.3	17.3	15.2	18.1	17.9
부자 가구	18.7	21.9	32.1	29.5	16.6	14.8	24.1	25.5	22.3	17.6	17.8
조손 및 소년소녀 가구	54.8	70.3	70.2	84.4	73.9	74.6	66.5	66.0	64.5	76.6	87.1
기타 가구	8.5	8.4	7.9	7.9	8.0	7.4	6.5	5.5	4.8	4.7	4.8
전체 아동 가구	10.2	10.6	9.7	9.5	9.7	9.3	8.1	7.0	6.2	6.4	6.8
경상소득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모자 가구	22.2	22.4	18.3	16.7	22.3	22.5	18.6	16.9	13.2	15.8	15.6
부자 가구	21.9	17.8	30.0	28.5	16.6	12.8	24.1	25.9	20.9	16.1	12.7
조손 및 소년소녀 가구	51.2	59.9	66.3	60.1	76.3	70.5	59.5	57.8	57.0	65.1	75.8
기타 가구	7.0	7.5	6.6	6.6	6.0	6.2	5.8	5.0	4.4	4.3	4.2
전체 아동 가구	8.7	9.5	8.4	7.9	7.7	7.9	7.3	6.5	5.6	5.8	5.9

주: 1) 1인 가구 포함, 농어가 제외.

2) 가구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결과라고 볼 수 있다.<sup>4)</sup> 또한 한부모 아동 가구는 전체 아동 가구 혹은 기타 아동 가구에 비해 빈곤율이 높았으며, 연도별 등락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한부모 부자 가구보다는 한부모 모자 가구의 빈곤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아동빈곤 실태를 아동의 연령별, 아동 가구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감소 폭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아동의 빈곤율은 2006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만으로 아동빈곤이 개선되고 있다고 단정 짓기에는 이르며, 아동의 경우 부모의 빈곤과 함께 정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의 빈곤이 아동기의 빈곤에 미치는 영향 또는 아동기의 빈곤이 청년층에 미치는 영향 등 시간 변화에 따른 아동빈곤 현상을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3. 아동빈곤의 동태적 변화

지금까지 연도별로 아동빈곤의 흐름을 살펴보았다면, 여기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지난 11년간(한국복지패널 1차에서 11차, 조사 기준 연도로 2005년에서 2015년)의 아동빈곤에 대한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아동빈곤의 연도별 변화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아동은 다른 연령 계층에 비해 빈곤율이

낮다는 점에서 빈곤정책에서의 중요성이 덜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과연 이러한 생각이 올바른 것인지 아동빈곤의 동태적 변화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아동빈곤의 동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몇 가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먼저 빈곤지수는 빈곤율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2장과 동일하게 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화된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율을 산출하였다. 소득은 시장소득과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하였다. 11년간 해당 아동이 빈곤을 얼마나 자주 혹은 반복적, 주기적으로 경험했는지를 판가름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총조사 기간 11년 중 5년 이상 빈곤을 경험한 아동을 장기빈곤, 2~4년의 빈곤을 경험한 아동을 반복빈곤, 11년 중 단 1년만 빈곤을 경험한 아동을 일시빈곤, 11년간 빈곤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경우를 비빈곤으로 정의하였다.<sup>5)</sup>

시간에 따른 빈곤 구분을 기준으로 전인구 기준과 아동 기준 빈곤의 동태적인 변화를 보면, 연도별 분석에서와 같이 전인구를 기준으로 한 빈곤율이 아동빈곤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소득 중위 50% 미만 기준으로 장기빈곤층은 16.4%, 반복빈곤층은 12.6%, 일시빈곤층은 11.6%, 비빈곤층은 59.5%였다. 시장소득 기

4) 시장소득 중위 50% 기준 노인빈곤율은 2006년 54.5%, 2010년 59.1%, 2015년 63.3%로 나타났다(강신욱 등, 2016, p. 97).

5) 위 구분은 빈곤을 연속적으로 경험했다고 가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즉, 한 아동이 5년 이상 장기빈곤을 경험해도 연속해서 5년간 빈곤할 수도 있지만 11년간 격년으로 빈곤을 경험하거나 2005년 초기에 3년, 2010년 이후 3년간 빈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속성을 기준으로 한 지속빈곤(Persistence poverty)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은 빈곤개념의 구분은 김태완, 이주미, 정진욱(2015), 김환준(2013)을 참고하기 바란다.

준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40%는 지난 11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빈곤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아동빈곤의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볼 때 장기빈곤층 7.5%, 반복빈곤층 8.1%, 일시빈곤층 10.2%, 비빈곤층 74.2%로, 지난 11년간 아동 중 25.8%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빈곤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빈곤율은 연도별 분석과 같이 동태적 분석에서도 전인구 빈곤율에 비해서는 낮았다.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중위 50% 미만의 아동빈곤은 장기빈곤층 5.6%, 반복빈곤 8.2%, 일시빈곤 9.0%, 비빈곤층 77.3%로 시장소득에 비해 빈곤율이 장기빈곤층은 1.9%포인트 감소, 반복빈곤층은 0.1%포인트 증가, 일시빈곤층은 1.2%포인트 감소하였다. 정부의 공적이전소득이 장기빈곤과 일시빈곤을 경험하는 아동에게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에서 유의할 점은 아동빈곤의 동태적 변

표 3. 아동빈곤의 동태적 변화

(단위: %)

0~18세 미만		장기빈곤	반복빈곤	일시빈곤	비빈곤
시장소득	중위 40% 미만	4.4	6.7	8.2	80.8
	중위 50% 미만	7.5	8.1	10.2	74.2
	중위 60% 미만	10.4	13.2	13.3	63.1
경상소득	중위 40% 미만	1.6	6.1	7.9	84.4
	중위 50% 미만	5.6	8.2	9.0	77.3
	중위 60% 미만	9.5	11.9	12.1	66.5
전인구		장기빈곤	반복빈곤	일시빈곤	비빈곤
시장소득	중위 40% 미만	12.1	9.9	10.3	67.7
	중위 50% 미만	16.4	12.6	11.6	59.5
	중위 60% 미만	21.2	16.0	12.8	50.0
경상소득	중위 40% 미만	6.9	8.9	10.4	73.9
	중위 50% 미만	12.3	12.2	11.5	64.0
	중위 60% 미만	17.7	15.6	12.9	53.7

주: 1) 소득은 균등화 시장 및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함.

2) 전인구 표본 수는 2만 6940명(가중치 부여 전), 2671명(가중치 부여 전)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1~11차)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화 산출 시 아동빈곤 현상은 매년 관측되며, 이를 토대로 지난 11년간의 아동빈곤 변화를 분석하지만 빈곤을 경험한 아동 및 그 가구의 특성을 분석할 경우에는 매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불

가능해 아동 및 그 가구의 특성은 최종 연도의 상태를 기준으로 분석했다는 것이다.<sup>6)</sup> 아동빈곤의 동태적 변화를 장단기 등으로 구분하고 최종 연도를 기준으로 아동빈곤의 특성을 보면 연령은

세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첫 번째는 패널의 마지막 연도(2015년) 기준 0~9세로, 이 연령대 아동 중 '0세'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빈곤하여 아동도 동시에 빈곤을 경험하는 경우이다. '9세'는 지난 10년간 일정 기간 빈곤을 경험한 아동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복지패널의 분석 기간이 11년이란 점을 고려하면 0~9세는 패널 초기보다는 패널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태어난 아동을 의미한다.

두 번째 그룹은 태어날 때부터 빈곤을 경험하여 11년차에 현재 연령이 10~17세에 이른 아동의 경우이다. 이 아동 그룹은 패널 초기부터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빈곤을 여러 해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2015년(11차) 조사에서는 아동의 연령인 17세를 넘어갔지만 패널 초기부터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아동빈곤을 경험한 그룹으로, 2015년 기준 연령이 아동을 넘어선 18~27세 그룹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룹은 아동으로서 현재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이며, 세 번째 그룹은 아동기의 빈곤 경험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sup>7)</sup> 여기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룹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세 번째 그룹은 아동빈곤이 미친 영향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이 글에서 구분하고 있는 연령 그룹을 기준으로 아동빈곤의 동태적인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0~9세로,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빈곤을 경험한 아동 비율을 보면 장기빈곤은 시장소득 기준(중위 50% 미만) 2.2%, 반복빈곤은 6.4%, 일시빈곤은 9.8% 수준이었다. 앞에서 분석한 전체 아동빈곤 수준에 비해서는 낮았다. 두 번째 연령 그룹인 10~17세의 초·중고 연령에 해당되는 아동의 빈곤율을 보면 시장소득 기준으로 장기빈곤은 13.1%, 반복빈곤은 10.0%, 일시빈곤은 10.5%로 첫 번째 아동 그룹에 비해 장기빈곤은 다섯 배 이상, 반복빈곤은 두 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아동빈곤을 연령별로 구분해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3). 패널을 기준으로 볼 때 10세 미만의 아동에 비해 10세 이상 및 과거 아동빈곤을 경험한 계층의 비율이 높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 10세 미만의 아동을 가진 부모 세대는 30~40대의 연령으로 생애주기에서 가장 왕성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실제로 생애주기별 빈곤 추이에서도 빈곤율이 가장 낮은 세대라는 점이 아동빈곤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패널 특성에 의한 것으로, 시간이

6) 개인 특성 중 성별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time-invariant) 특성이라는 점에서 분석에 어려움이 없지만 연령, 학력, 노동시장 참여 형태 등은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되는 변수라는 점에서 매년의 변화를 반영하기보다는 최종 연도 혹은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른 특정 연도의 특성을 기초로 분석하게 된다.

7) 김수정(2010), 김태완 등(2012)의 연구에서는 청년빈곤을 다루며 빈곤이 청년층의 장기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흔효과(scarring effect)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세 번째 그룹이 아동기의 빈곤 경험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흔효과를 분석하는 것과 동일하다 할 수 있다.



표 4. 연령별 아동빈곤의 동태적 변화(2015년, 중위 50% 기준)

(단위: %)

구분		장기빈곤	반복빈곤	일시빈곤	비빈곤
0~9세	시장소득	2.2	6.4	9.8	81.7
	경상소득	1.6	4.9	7.6	86.0
10~17세	시장소득	13.1	10.0	10.5	66.4
	경상소득	9.7	11.6	10.4	68.3

주: 1) 소득은 균등화 시장 및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함.

2) 0~9세 표본 수는 1262명(가중치 부여 전), 10~17세 표본 수는 1409명(가중치 부여 전)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1~11차)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지남에 따라 패널 내 같은 연령대의 아동 수가 적어지면서 측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하에서는 아동빈곤의 개인 특성과 가구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개인 특성에 대해서는 아동빈곤 경험이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세 번째 그룹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가구 특성과 관련해서는 아동빈곤을 경험한 아동이 속한 가구주, 가구 상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가. 아동빈곤 가구(주) 특성

아동빈곤을 경험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와 어떠한 특성 차이를 보일까. 먼저 가구주의 성별을 보면 장기빈곤을 경험한 아동빈곤층의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 장기빈곤 4.7%, 반복빈곤 7.5%, 일시빈곤 9.2%, 여성인 경우 장기빈곤 38.5%, 반복빈곤 27.4%, 일시빈곤 8.5%로, 남성 가구주에 비해 여성 가구주인 경우 아동빈곤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아동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가구주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에서도 장기빈곤을 경험한 아동 가구의 가구주는 주로 일용직(23.4%), 비경제활동인구(31.9%)로 나타났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주는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 상용직인 경우 비빈곤 비율이 87.6%로 나타나는 등 노동시장 내 지위가 아동빈곤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빈곤을 장기적, 반복적으로 경험한 아동빈곤 가구의 가구주 가운데 여성이 많았는데, 실제 가구 형태를 보면 모자 가구와 조손 및 소년소년 가구가 각각 장기빈곤율 41.6%, 45.1%로 심각한 빈곤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반면 기타 가구와 부자 가구의 경우 장기빈곤보다는 반복 혹은 일시빈곤을 경험하는 비율이 모자 및 조손 가구 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금까지 아동빈곤 문제를 소득 중심으로 분

표 5. 아동빈곤가구 가구주 특성(2015년, 중위 50% 기준)

(단위: %)

구분		장기빈곤	반복빈곤	일시빈곤	비빈곤
가구주 성별	남성	4.7	7.5	9.2	78.6
	여성	38.5	27.4	8.5	25.6
가구주 노동시장 참여 형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1	4.8	5.6	87.6
	임시직 임금근로자	14.2	11.4	18.0	56.4
	일용직 임금근로자	23.4	21.0	12.7	42.9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 가족 포함)	4.8	12.5	12.9	69.8
	실업자	18.3	18.1	20.7	42.9
	비경제활동인구	31.9	22.6	15.8	29.6

주: 1) 소득은 균등화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함.

2) 표본 수는 2671가구(가중치 부여 전)를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1~11차)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표 6. 아동빈곤 가구 가구 유형(2015년, 중위 50% 기준)

(단위: %)

구분		장기빈곤	반복빈곤	일시빈곤	비빈곤
0~17세	모자 가구	41.6	32.4	9.7	16.4
	부자 가구	29.5	30.7	6.2	33.7
	조손 및 소년소녀 가구	45.1	11.4	14.2	29.3
	기타 가구	5.0	7.5	9.1	78.4
0~9세	모자 가구	9.0	59.8	2.7	28.6
	부자 가구	26.3	-	-	73.8
	조손 및 소년소녀 가구	16.7	-	39.4	43.9
	기타 가구	2.1	4.6	7.8	85.5
10~17세	모자 가구	46.2	28.5	10.7	14.6
	부자 가구	30.1	36.5	7.4	26.1
	조손 및 소년소녀 가구	46.8	12.0	12.7	28.4
	기타 가구	7.6	10.1	10.4	72.0

주: 1) 소득은 균등화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1~11차)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석하였다. 아동빈곤 가구는 소득에서만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소득빈곤과 상관성이 높은 주거 상태를 함께 살펴보면, 소득빈곤을 경험한 아동 빈곤 가구는 주거 상황 역시 좋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거 점유 형태를 보면, 장기빈곤 아동 가구는 보증부 월세(47.2%), 월세(3.1%)로 월세가 주된 주거 형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가는 27.2%, 전세는 8.2%로 월세에 비해 낮았다. 기타인 경우도 14.3%로 높은 비율을 보여 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반면에 비빈곤 아동 가구의 주된 점유 형태는 자가 62.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세가 22.9%로 나타나 장기빈곤을 경험한 아동 가구에 비해 주거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자가 가구를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장

기적으로 아동빈곤을 경험한 비율은 3.2%, 반복 및 일시빈곤은 각각 5.8%, 9.9% 수준이었다. 반면 보증부 월세 가구 중 장기빈곤을 경험한 아동 가구는 24.4%, 반복 및 일시빈곤은 각각 12.1%, 9.3%로 역시 자가 가구에 비해 소득 및 주거빈곤이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아동 가구의 소득 및 주거빈곤을 함께 분석한 결과 소득에서 월임대료를 20% 이상 부담하는 가구 중 장기빈곤을 경험한 아동 가구는 9.8%, 반복빈곤은 12.5%, 일시빈곤은 17.8%로 나타났다. 소득빈곤을 경험한 가구의 약 40%가 주거비에서도 동일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중 장기빈곤을 경험한 아동 가구는 32.1%, 반복 및 일시빈곤을 경험한 아동 가구는 각각 21.7%, 16.4%로 많은 수의 아동

표 7. 아동빈곤가구 주거 점유 형태(2015년, 중위 50% 기준)

(단위: %)

구분	장기빈곤	반복빈곤	일시빈곤	비빈곤
자가	27.2	39.1	63.1	62.8
전세	8.2	27.5	16.5	22.9
보증부월세	47.2	18.1	13.3	9.4
월세(사글세)	3.1	4.6	-	0.6
기타	14.3	10.8	7.1	4.4
소계	100.0	100.0	100.0	100.0
자가	3.2	5.8	9.9	81.1
전세	2.6	11.0	7.0	79.4
보증부월세	24.4	12.1	9.3	54.2
월세(사글세)	20.3	38.2	-	41.6
기타	16.5	16.0	11.0	56.5
소계	100.0	100.0	100.0	100.0

주: 1) 소득은 균등화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1~11차)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빈곤 가구는 좋지 않은 주거 환경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임대료 기준과 최저 주거 기준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되는 아동빈곤 가구 중 장기빈곤을 경험한 비율은 26.2%, 반복 및 일시빈곤 가구는 각각 17.6%, 17.2%로 분석되었다. 결국 소득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 가구는 주거에서도 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 아동빈곤의 영향

앞에서 아동빈곤 경험층을 세 그룹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 세 번째 그룹으로 아동기에 빈곤을 경험한 18~28세 사이 청년과,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의 학력 수준을 비교해 보면 아동기 빈곤 경험이 이 연령대 청년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8)</sup>

표 8. 아동빈곤 가구 주거빈곤(2015년, 중위 50% 기준)

(단위: %)

구분	장기빈곤	반복빈곤	일시빈곤	비빈곤
월 임대료 기준(20%)	9.8	12.5	17.8	59.9
최저 주거 기준	32.1	21.7	16.4	29.8
임대료 및 최저 주거 기준	26.2	17.6	17.2	39.1

주: 1) 소득은 균등화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함.

2) 최저 주거 기준과의 비교를 위해 자가를 포함해 저자 계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1~11차)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아동기에 장기빈곤을 경험한 청년의 경우 대학 이상 경험층은 28.1%였지만 비빈곤을 경험한 이 연령대 청년층은 60.8%로 장기빈곤을 경험한 아동에 비해 두 배 이상 대학 진학률이 높았다. 고졸 이하 비율을 보면 장기빈곤 경험층은 50.6%, 비빈곤 경험층은 18.6%로 역시 두 배를 넘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동빈곤을

경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최근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흑수저, 금수저 현상에 투영되는 것이다.

아동기의 빈곤 경험은 20대에 처음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을까. 노동시장 참여 형태를 기준으로 보면, 아동기에 장기빈곤을 경험한 청년층의 경우 상

8) 이하의 분석은 한국복지패널조사를 기준으로 10차 조사까지 아동빈곤을 경험한 청년층을 기준으로 11차 조사(2015년)에서의 학력 수준과 노동시장 참여 형태를 분석한 것이다.

표 9. 아동빈곤 경험자(18~28세)의 학력 수준(2015년, 중위 50% 기준)

(단위: %)

구분	장기빈곤	반복빈곤	일시빈곤	비빈곤
중졸 이하	3.0	0.3	1.2	0.2
고졸 이하	47.6	34.1	29.1	18.4
전문대 졸 이하	21.4	31.5	26.7	20.6
대학 이상	27.0	32.8	41.3	57.9
대학원 이상	1.1	1.4	1.9	2.9

주: 1) 소득은 균등화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함.

2) 표본 수는 1554명(가중치 부여 전)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1~11차)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표 10. 아동빈곤 경험자(18~28세)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2015년, 중위 50% 기준)

(단위: %)

구분	장기빈곤	반복빈곤	일시빈곤	비빈곤
상용직 임금근로자	7.7	15.9	25.0	21.8
임시직 임금근로자	15.7	17.4	19.0	12.4
일용직 임금근로자	7.1	10.2	5.5	3.4
자영업자(고용주, 무급 가족 포함)	-	-	1.2	1.5
실업자	3.3	2.1	3.2	1.5
비경제활동인구	66.3	54.5	46.0	59.5
근로 무능력	4.9	0.3	2.5	0.4
군 복무	3.6	8.4	6.2	6.5
정규 교육 학업	46.1	55.3	58.4	63.0
진학 준비	2.9	2.7	5.3	6.5
취업 준비	14.4	18.9	15.0	13.5
가사·양육·간병	5.0	6.3	3.2	3.8
구직활동 포기	6.7	4.0	1.5	0.3
근로 의사 없음	13.4	3.0	7.7	5.0
기타	3.0	1.2	0.1	1.0

주: 1) 소득은 균등화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1~11차)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용직 비율은 7.7%, 임시 및 일용직은 22.8%, 실업자는 3.3%인 것과 비교해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층은 상용직이 21.8%로 장기빈곤을 경험한 그룹에 비해 2.8배 정도 비율이 높다. 반면에 임시 및 일용 경험은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에도 장기빈곤 경험층과 비빈곤층 간에 차이를 보여 비빈곤층이 주로 학업 중이거나 진학 및 취업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빈곤 경험 그룹은 학업 이외에 취업 준비, 구직활동 포기 및 근로 의사 없음 등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비경제활동 사유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4. 나가며

이 글에서는 아동빈곤의 연도별 변화와 패널을 활용한 아동빈곤의 동태적 변화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횡단 자료를 활용한 아동빈곤율은 최근 경상소득 기준(중위 50%) 6.9%로 그 수준은 전인구 및 65세 이상 고령층에 비해서는 높지 않았다. 패널을 활용하여 아동빈곤의 시간에 따른 동태적 변화를 보면 시장소득(중위 50%)을 기준으로 장기빈곤층은 5.6%, 반복빈곤층은 8.2%, 일시빈곤층은 9.0%, 비빈곤층은 77.3%였다. 지난 시기 약 23%의 아동이 어떠한 형태로든 빈곤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빈곤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장기간 아동빈곤

을 경험한 가구의 특성을 보면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 아동이 장기간 빈곤에 노출되고 있으며, 노동시장 참여 형태도 안정적인 일자리보다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많이 경험하는 양상이었다. 또한 아동빈곤은 단순히 소득빈곤에 그치지 않고 불안정한 주거 문제와 주거빈곤도 함께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아동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아동기에 경험한 빈곤 상태가 청년기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장기빈곤을 경험한 아동은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학력 수준과 노동시장 참여 상태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아동빈곤 문제에 대한 조기 대응과 더불어 단발성 정책이 아닌 장기적 안목에서 아동빈곤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아동기의 빈곤 경험이 청년기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패널 자료 분석을 활용하여 상흔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분석을 통해 아동빈곤의 함의를 살펴보면, 첫째, 아동빈곤을 경험한 가구에 대한 개입 조건 중 하나로 아동빈곤 가구의 가구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 남성이 가구주인 경우에 비해 빈곤에 쉽게 노출되며 주로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빈곤 가구주에게 공공형 및 복지서비스형<sup>9)</sup>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제

9) 공공형은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를 의미하며 복지형 일자리는 노인, 장애인 혹은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돌봄서비스 등의 사회적 일자리로 이들 일자리에 취약계층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함으로써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제거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여성 가구주의 경우 일과 아동 양육을 병행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여성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당 가구 아동에 대해서는 돌봄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분석에 나타난 것과 같이 아동빈곤을 경험한 청년은 성인이 되어도 학력 수준과 일자리에서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에 비해 노동시장 안정성을 획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초중고 시기부터 빈곤아동 가구의 아동 혹은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속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아동빈곤 가구에 대한 주기적 상담 제공을 통해 부족한 교육, 노동시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학업 및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어려움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한 방과후학습을 제공해 학습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상위 학교로의 진학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적성에 따라 상위 학교보다는 특정 직업군(예: 기술직, 예술 분야 등)을 선택하는 아동에게는 마이스터고 혹은 관련 직종에 대한 정보·발전성 등의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함으로써 성인이 되어도 안정적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아동빈곤 문제는 정규 학교 입학 전 혹은 입학 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연령별 빈곤 동태 분석에서 1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빈곤을 경험하는 아동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내년부터 아동에 대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0~만 5세아)을 제공할 예정이다. 빈곤 감소 효과에서 보듯이 정부의 공적이전은 아동빈곤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효

과를 준다는 점에서 점진적으로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동수당 대상의 확대는 단기적으로 재정 문제(예: 일본의 사례)를 함께 가져온다는 점에서 한부모 가구 등 아동빈곤을 경험한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한부모 수당 등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아동빈곤의 위기에 대처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김성아, 김태완, 2017). ■

### 참고문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 편. (2016). **2016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아, 김태완. (2017). 일본의 아동수당과 한국의 가정양육수당 비교. **보건복지포럼**, 2017년 6월호(통권 248호), 85-96.
- 김수정. (2010). 청년층의 빈곤과 이행의 곤란. **사회보장연구**, 26(3), 49-72.
- 김태완, 김문길, 정진욱, 강성호, 이주미, 정희선. (2012).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완, 이주미, 정진욱. (2015). 노인의 빈곤과 우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5(3), 71-102.
- 김환준. (2013). 장기빈곤의 개념 정의와 장기빈곤층의 특성. **사회과학연구**, 24(4), 135-154.
- 여유진, 김미곤, 정은희, 이주미, 정희선, 권지성

- 등. (2016). **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한 실태 연구**. pp. 136-142.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은희, 이주미. (2015). **2015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OECD. (2016). *Society at a Glance 2016*. OECD. p. 105.
-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